◉ 濟州島硏究, 제 4 집 1987. ◉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全 京 秀*

Ⅰ. 서 언

본고는 선학들께서 피력해오신 탐라상고사 및 그 社會에 관한 문헌들을 기초로 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문제를 문제중심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와 그 시도의 전개과정을 가능한 한 소상히 밝혀보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가 선학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주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탐라상고사에 관한 거의 모든 문헌들을 망라한다든지 그러한 문헌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하는 작업은 지극히 부차적인 일로 취급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러한 개인적 입장의 정리가 예상 가능한 많은 압력으로부터 필자를 해방시켜줄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러한 해방감이 필자로 하여금 본고를 집필하려는 본래의 연구목적에 더욱 충실히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선결과제가 되기도 한다.

상고 탐라 사회라고 한정한 시대적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뒤에서 간

* 서울大學校 人類學科 副敎授

** 이 論文은 世林文化財團의 1987년도 韓國學硏究費의 支援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세를 졌다. 특히 이청규 교수(제주대 사학과), 노태돈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임효재 교수(서울대 박물관장), 최몽룡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게 고마운 말씀을 올리고 싶다. 그리고 초고의 발표당시 본고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코멘트를 해주신 장주근 교수, 현용준 교수, 홍순만 선생과 평소에 濟州島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신 金啓淵·玄基榮先生과 문헌 수집에 도움을 준 강창용 군에게도 감사드린다. 본고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소관이지, 그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략하게 언급할 시대구분의 문제에서 본고가 한정하는 上古의 범위가 제시될 것이다.

본고의 일반적인 연구목적은 상고 탐라 사회의 기본구조와 그 운동방향을 밝히는 것으로 삼고 있다. 基本構造라고 언표한 것은 濟州島라는 공간적 여건과 上古라는 시간적 여건이 한정하는 상고 탐라사회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위에서 文化史上의 저변에 흐르는 어떤 원리 또는 문화적 규칙을 천착해 보자는 것이다. 運動方向이라고 제명한 것은 앞에서 전제한 특수성을 감안하고, 상고 탐라의 주변상황이 부여하는 힘과 탐라의 주체적 움직임에서 발휘되는 힘과의 역동적인 변증법적 상관관계 속에서 설정되었다고 생각되는 탐라사회의 주류적 방향에 대한 탐구를 연구의 기본목적으로 삼자는 의도이다. 여기에서 발생된 결론이 특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탐라상고라는 공간적·시간적 특수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고집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比較文化的인 시각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부터의 유추적인 논리의 차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기의 세 개념 즉 상고탐라사회·기본구조·운동방향에 대한 조작적 정의들의 조합이 생산한 문제의식에 접근하기 위한 필자의 전략은 지극히 귀납적이다. 주제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선학들의 연구결과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과정과 동시에 주제를 보는 필자의 시각이 정리 및 확립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미해결의 부분들을 유추 및 확대해석할 수 있는 힘이 저축되어 우선적으로 적용된 귀납적 사고를 배경으로 하여 추후의 연역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고의 논리전개중 일부에서는 연역적 사고의 시도도 감행해 보았다.

Ⅱ. 자료와 시각

서언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자가 자료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세 가지로 범주화되고 있다. 즉 上古 耽羅社會를 논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神話·考古學的 유적과 유물·文獻史料로 대표되고 있으므로 필자가 제시한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상기 세 가지 범주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의 첫째는 탐라관계의 신화에 관련된 자료들과 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상고 탐라 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들을 근거로 하여 탐라상고의 문화사를 점검해 보고, 셋째로는 동일한 맥락에서 고대 제주관계의 문헌사료들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상기의 세 가지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전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 범주간의 비교검토가 요망되기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제주의 역사와 사회를 탐구해 온 일부분의 저작들이 큰 관심없이 간과해온 문제들 중에서 필자에게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濟州島의 역사와 사회를 보는 기본시각이 어떤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질문은 또한 어떤 입장에서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아래와 같은 명제를 확립하고, 그 명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천적 분석단위들을 가설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그 명제란 바로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사를 조망하는 시각의 확립이며, 가설적인 분석단위들은 배경으로 주어져 있는 지역적 구분을 이용하려고 한다. 분석단위들로서의 지역적 구분들이란 1) 濟州島 2) 韓半島 3) 東亞細亞의 세 가지 범주들이다.

즉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사회와 역사를 보는 경우가 있고, 한반도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사회와 역사를 기술하는 수가 있고, 동아시아 또는 좁게는 東支那文化圈이라는 차원에서 제주도의 사회와 역사를 조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간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기술하는 적지 않은 저작들이 제주도를 한반도에 건설되어 있는 하나의 國家에 편입된 하위단위로 간주하는 입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중세와 근세 그리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제주도역사 기술의 기본입장이 한반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거의 고정관념이 되고 있는 것은 역사상에 벌어졌던 커다란 사건들이 남긴 기록들로부터 잘 반영이 되고 있다. 중세의 "三別抄亂", 근세의 각종 民亂들, 그리고 현대의 "4·3사건" 등의 고찰에서, 이유야 어떻든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보는 시각의 결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정치적·행정적 하위단위로서 한반도의 일부로 편입되기 이전의 탐라상고라는 상황을 설정해 보면, 중세 이후에 확립된 한반도 중심의 제주도 역사라는 시각을 상황이 다른 탐라상고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탈맥락적인 시도인 것인가 하는 자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에 의하여 탄생된 결과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허구성은 어렵지 않게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주도 역사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위하여서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오지 못한 동아시아라는 단위 (그것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한반도보다 큰 지역적 단위로서 범위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는 것)에 대한 시각적 배려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탐라상고를 고려함에 있어서 한반도 중심이라는 시각의 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상하는 단위가 동아시아 또는 **東支那海洋文化圈**[1]이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보는 상기의 세 가지 입장의 평등한 적용과 유용한 조합이 앞으로의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바탕 위에서 시험적으로 상고 탐라 사회의 문제에 접해 보고자 한다. 즉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세 가지 입장의 평등한 적용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명의 편의와 유용도에 따라서 그 입장들의 선별적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 탐라상고라는 문제를 구상하고 집필하는 필자의 기본정신이며 의도이다. 그리고 그 간에 상고 탐라 사회를 다루어 온 문헌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시각의 적용이 동일하게 응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이 개념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서 **東支那**라는 **地域單位**를 중심으로 **文化傳播**에 의하여 형성된 하나의 **文化領域**이라는 잠정적인 가설이다.

제주도사를 조망하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시각의 준거틀 위에서, 필자는 본고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각을 정립하려고 한다. 이 시각정립의 작업은 본고의 논리전개를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첫째,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한 상고시대의 탐라라는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耽羅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즉 시간적으로는, 탐라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후대의 사고방식에 의하여 침윤되었을 가능성이 큰 신화의 해석이나 문헌사료의 취급을 극도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간적 또는 지리적으로 주어진 탐라의 성격을 진단함에 있어서 한반도에의 陸屬化[2]라는 가정이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탐라의 海洋世界와 동지나해양문화권 그리고 소위 黑潮文化와의 연결관계는 시대가 상고로 올라갈수록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의 육속화라는 가정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지나와의 海緣關係를 중요시 또는 육속화와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상고 탐라의 실체를 밝히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익히 유전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상고 탐라의 상황은 동아시아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적 개념 속에서 탐구될 명분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필자는 일반전파론과 그에 부수되는 논리전개의 위험을 경계하며 특정지역내의 特殊傳播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全京秀 1984:79). "濟州島의 文化史觀"을 고려하는 六堂선생처럼 一般傳播論의 관점에 입각하여 탐라상고의 상황을 北海道의 아이누족 및 전아세아인과 관련시키는 무리를 (崔南善 1948:108-110) 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본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탐라상고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그 시대의 상한을 정해볼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물들에 의한 것으로서 잠정적인 상한은 新石器時代[3]라고 할 수 있

2) 국제정치학이나 군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대륙에 부속 또는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3) 전기·중기·후기로 구분되고 있는 신석기시대 중 제주도에서는 후기의 유적과 관련 유물이 주로 출토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이청규 1986), 본논문이 구두로 발표된 후 李淸圭 교수는 한경면 고산리에서 初期 新石器時代의 유물로 추정될 수 있는 隆起文土器片을 발견한 바 있다.

다. 이 상한연대는 앞으로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하여 얼마든지 재조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라상고사의 상한연대를 굳이 못박을 필요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하한년대는 문헌사료에 근거하여 독립국가로서의 탐라국이 고려의 일개 지방군인 耽羅郡으로 전락하는 시기인 서기 1105년[4]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고고학적인 유물에 근거하여 原三國時代 또는 삼국시대 초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문헌사료를 부차적인 보조자료로 삼고 있는 본고에서는 대체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소위 탐라국 발생의 문제라는 주제가 몰고 올 고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탐라국 발생이라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필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주제이다.

문헌기록의 결여를 특징으로 하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시대구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고학적 자료와 신화적 자료의 비교분석이 시도되는데, 그 결과들은 자료를 다루는 관점에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제시되어야 하는 전제는 역사시대의 기록문헌을 자료로 원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史料批判의 문제이다. 필자가 언급하는 사료비판이라는 것은 史學史的인 입장에서 행해지는 사료비판이 아니라 文化史的인 입장에서 기록자료가 안고 있을 수 있는 관점의 편견에 관한 것이다. 즉 기록자의 입장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는 문헌기록의 편파적인 추이에 대한 경계는 특히 고대 중국측의 史書들이 남긴 탐라에 대한 기록들을 취급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문명과 기술수준의 단계를 기준으로 한반도와 그 以東地域에 대한 기록을 보이는 중국측의 견해가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文化相對的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탐라상고에 대한 중국측의 기록들이 당시의 실상을 상대적으로 비하하여 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은 본론에서 구체

4) 〈高麗史〉 卷五十七 志卷十一 地理二. 耽羅縣條 : 肅宗十年, 改乇羅, 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

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Ⅱ. 소위 "三姓神話"에 대하여

상고 탐라 사회를 논함에 있어서 神話와 그 내용을 분석의 주제로 채택하는데에는 필자 나름으로 소박하게 설정한 의미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신화를 대하는 人類學者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도 미리 밝혀둔다. 신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史實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신화의 내용이 史實과 부합되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떤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의 상고사를 고려하는데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속단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화라는 것은 그 신화를 유전해 오고 있는 사회집단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탄생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고, 따라서 신화의 내용분석이 그 사회집단의 문화적 배경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게 인식된다. 이러한 신화의 역사성 때문에, 신화분석을 통한 특정집단의 문화적 배경과 그러한 문화적 배경의 토양에서 생성 가능한 사회구조의 원리와 세계관을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Lévi-Strauss 1976) 인류학자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소위 "三姓神話"로 통칭되고 있는 제주도의 신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신화를 보는 여러가지 입장들 중에서 필자의 논의에 비교적 유용한 의견들을 선별적으로 비교·검토하려고 한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유전되고 있는 신화는 소위 "三姓神話"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異本들의 존재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내용은 "3개의 삽화가 3단의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話素의 몇 개가 다른 것 뿐이다" (玄容駿 1983:56-57). 이 신화의 내용은 관찬사서인 〈高麗史〉의 〈地理誌〉[5]와

5) 주 4) 참조.
耽羅縣 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 無人物 三神人從地聳出(今纛山北麓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避獵荒僻 皮衣

族譜내용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瀛洲誌〉[6]에 수록되어 있다. 현용준 교수는 〈高麗史〉의 수록내용과 〈瀛洲誌〉의 수록내용을 두 계열로 분리하여, 그 두 기록을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이본들의 종주본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玄容駿 1983), 필자는 이 두 기록이 하나의 계열에 속하는 이본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교수가 구분하는 〈高麗史〉의 계열과 〈瀛洲誌〉의 계열의 구분기준이 주로 "三姓"의 序列문제와 관련된 기록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高麗史〉에서는 良高夫의 순서로, 〈瀛洲誌〉에서는 高良夫의 순서로 표시되어 있는 등), 이 姓氏序列의 문제가 본 신화의 구성과 문화사적 내용에는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현교수 자신도 "선사시대에 漢子의 姓氏가 있을 수 없다"(玄容駿 1983:87)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金奉鉉 1960:11) 성씨서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교적 윤색이 가해진 것으로 특히 기년체식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張籌根 1960:65)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씨서열을 구분기준으로 하여 그 신화를 〈高麗

肉食 一日見紫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人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 生此三女云 西海中 嶽降神子三人 將欲國而 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以爾 宜作配以成大業 使者 忽乘雲而去 三人 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失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6) 작자미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말선초의 작품으로 간주하려는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그 주장의 신빙성은 희박하다. 장서각 소장의 〈瀛洲誌〉에 수록된 신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瀛洲 太初 無人物也 忽有三神人 從地湧出鎭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游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 登漢拏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三人降臨就開則內有玉函 形 如鳥卵 有一冠 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子三人 年皆十五六容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餙共坐 且 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上 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嘗以遣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 于西溟則紫氣運空 端色葱朧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 宜用伉儷之禮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莫知所之 三神人即以潔牲告天以年次 分娶之就泉甘 土肥處 射失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

史〉 계열과 〈瀛洲誌〉계열로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르는 후대의 관심에 의하여 윤색된 것에 의존하여 구분하는 것이지 신화 자체가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의 성격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高麗史〉의 신화기록과 〈瀛洲誌〉의 신화기록은 하나의 계열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異本이된 원인은 후대의 姓氏中心思想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식 명분에 의하여 윤색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7]

이제 그 신화의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탐라상고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구조의 원리들에 관한 정보들을 추출해 보기로 하자. 필자는 내용서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기록된 분량으로 볼 때, 〈瀛洲誌〉의 내용이 〈高麗史〉의 내용보다 많기 때문에, 필자는 〈瀛洲誌〉를 중심으로 신화의 내용을 서술할 것이고, 대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瀛洲誌〉의 기록에 이어서 〈高麗史〉의 기록을 괄호속에 넣어서 첨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많은 이본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高麗史〉와 〈瀛洲誌〉의 기록들에서도 후대에 첨삭되었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사고의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8], 그러한 요소들이 훨씬 많이 발견되는 후대에 만들어진 소위 이본들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三神人"이 "從地湧出"하였다는 것은 "三神人"으로 대표되는 三神人集團

7) 영주지의 성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 문제를 더욱 명백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주지 및 그에 관련된 문헌들을 비교 고찰하는 후일의 논고가 기대된다.

8) 현용준 교수는 〈高麗史〉의 기록 중 "日本國"과 〈瀛洲誌〉의 기록중 "碧浪國"을 비교분석하고, 신화의 화소라는 측면에서 "日本國이라 한 것은 합리적인 사고에서 동해에 있는 실제의 나라로 비정해 놓은 것이라고" (현용준 1983: 62)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현교수가 제기한 합리적 사고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것이지, 인용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신화의 내용속에 스며든 합리적 사고의 문제는 〈瀛洲誌〉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다. 즉 碧浪國에서온 靑衣處子三人의 연령이 "皆年十五六"이라고 한 것이나, 개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라고 한 것 등이다. 현교수가 〈瀛洲誌〉 계열이라고 인용한 효열공파 〈長興高氏家乘〉에 실린 내용의 서문에서는 "君·臣·民"을 언급함으로써 유교식 세계관과 사회계급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토착세력이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들이 "從地湧出"한 곳이 "毛興"이라는 窟인데, 그 話素로부터 필자는 政治的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三神人集團의 토착세력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치형태라는 측면에서 볼때 氏族社會라는 사회조직적 형태로부터 部族社會 또는 극소형태의 酋長社會로의 진화적인 이행과정이 이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성으로 의인화된 三神人의 등장으로 부터 氏族的 편제의 중심세력이 父系血統(patrilineal descent)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짙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毛興"이라는 것을 "모이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떤 형태가 漢子로 착자된 것의 표기로 간주한다면[9], 三神人이 "從地湧出"했다는 화소는 각각 氏族的 배경을 달리 하는 세 父系血統集團이 "〔氏族〕[10] 연합의 부족사회"(張籌根 1960:65) 또는 극소형태의 酋長社會를 형성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三神人을 長·次·三으로 서열화시킨 것은 부족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계혈통 집단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비정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 표현을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씨족"집단들간의 계층화 현상으로 파악하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射矢卜地"의 의미와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시키게 된다.[10] 활을 쏘아서 각기의 居所를 정한다는 화소의 내용은 평등사회의 경쟁원칙을 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기 때문에, 長·次·三의 서열화를 위계적인 서열우위의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선후맥락을 상실하는 경우를 초래한다.

"高乙那"[11]가 대표인 집단, "良乙那"가 대표로 된 집단, "夫乙那"가 대표

9) 향가 禱千手觀音歌 중의 "모호"는 모일 集의 타동형인 "모호"이다. 梁柱東 1954:460-461참조. 특별한 사건이 地名의 유래가 된 것으로 이해한다.

10) 金奉鉉(1960:28)은 이 상황을 "무계급사회로 부터 계급사회에의 이행과 정복적 령지 설정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마르크스적 역사발전 단계설을 전후맥락을 숙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불과하여 신화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11) 1918년에 간행된 金錫翼의 〈耽羅紀年〉에는 "乙那……鄕言王"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 그러한 풀이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탐

인 집단의 연맹체계인 추장사회 또는 부족사회의 형성은 기본적인 사회편제 또는 사회구성체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상고 탐라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탐라사회가 특정 부계혈통 중심의 혈연공동체로부터 탈피하여 정치적인 연합체적 성격을 띤 보다 큰 지역중심의 **地緣共同體**로 이행한다는 현상은 탐라사회 내부의 조건에 의해서만 결과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당시 정치적 성격을 띤 지연공동체에로의 변화요구는 탐라사회 내부의 모순해결과[12] 외부의 압력수용이라는 기능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실질적 변화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화소가 "**處子三人**"(處女三人)과 "**碧浪國使**"(日本國使)의 등장이다. 신화의 초두에 기록하고 있는 "**太初無人物**"이라는 상황과 탐라외부인인 處子三人과 碧浪國使臣이 등장하는 상황의 비교에서 우리는 적어도 당시 탐라인의 세계관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연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탐라인들은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 아니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탐라인들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요점이 된다. 그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은 갈등으로 대표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조화라는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신화의 표면에 나타난 것은 후자의 경우인데, 전자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외부와의 갈등관계 및 외부로 부터의 압력이 三神人集團으로 개념화되는 부족사회 또는 추장사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결과가 신화의 화소로 유전된 것으로 생각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氏族聯合에 의한 耽羅部族 형성의 機制와 過程은 알 수 없으나, 耽羅部族의 형성이라는 文化的 意味는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耽羅部族이 碧浪部族(또는 그 이상의 정치형태)과 혼인에 의한 結緣關係

라고어의 문화사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비약적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12) 특정한 소규모 지역내에서 혈연집단의 지속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宗族分節(lineage segmentation)이 그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순 및 모순해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은 외부와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진전될 수 있다. 또 다른 내부모순의 가능성은 族外婚을 행하는 곳에서 장기간이 지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배우자 선택의 압력이다.

(alliance)를 맺는 상황의 전개가 신화내용의 중요부분이다. 결연관계라는 것이 이 신화가 갖는 사회구조적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즉 三神人集團인 耽羅部族은 外婚制(exogamy)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 동서관계를 맺은 결과가 되었고, 碧浪國王의 입장에서 보면 탐라부족의 유력인사들을 사위로 맞음으로써 탐라국과 碧浪國 사이에는 일종의 婚姻同盟關係가 성립된 것이다. 결국 탐라부족사회는 외부와의 혼인동맹을 근거로 하는 결속관계를 기제로 하여 자체내에서 형성되었던 부족공동체보다는 상위의 복잡한 정치집단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같다. 신화에서 나타난 이 현상, 즉 탐라사회의 외부로부터 혼입해오는 우위세력이 탐라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탐라사회에 선진기술을 이식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그 이주세력은 탐라사회의 일부를 구성하여 기존 탐라사회의 체질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은 의미있는 유형으로 지적된다. 선진기술을 습득한 移住民集團이 기술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土着民集團을 갈등과 경쟁관계라는 맥락에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반려관계라는 상징적 맥락에서 조우한다는 것은 탐라상고사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다.

三處子가 三神人의 거소로 와서 혼인을 했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혼인후의 거주규정상 夫居制(virilocality)[13]가 통용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논의(玄容駿 1983:84)와 巫俗性이 강한 제주도 堂神神話와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의견(張籌根 1986)은 각기 사회구조와 종교라는 측면에서 조망된 신화의 모습을 예리하게 분석한 탁견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토착민인 三神人集團의 경제생활은 수렵채집을 배경으로 하고, 이주민인 三處子集團은 농경과 목축기술을 갖고 있는 집단의 출신들임이 드러난다.

三神人과 三處子가 혼인후 "射矢卜地" 하여 각 雙을 중심으로 一都·二都·三都의 집단 거소를 정한다는 내용에서 탐라부족사회는 이주민이 전해준 농경과 목축기술을 습득하여 수렵채집경제의 단계로부터 정착농경경제의 상태

13) 玄容駿 교수는 이 현상을 夫方居住制라고 번역하고 있다.

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 왜냐하면 배타적인 생산경지의 확보가 정착농경에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용준 교수는 또한 이 신화를 비교문화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신화가 포함하는 "地中湧出", "箱舟漂着", "身分序列" 등의 개념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神話素과 빈번히 나타나는 동남아시아와의 문화적 연관관계를 상정한 것(玄容駿 1983:71-82)은 民族學的으로 의미있는 작업이다. 동남아시아와의 연관관계는 탐라상고사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준거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 상관성은 본고의 서두에서 제시한 特殊傳播의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일이지 一般傳播의 맥락에서 거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신화의 내용분석을 통한 上古耽羅社會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부분적으로 父系血統·外婚制·夫居制 등이 암시되고, 경제적으로는 수렵채집단계로 부터 정착농경단계로 이행했다는 과정이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는 氏族社會의 형태로부터 部族社會의 형태로 진화한 과정이 파악된다.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移住民의 등장은 耽羅社會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 신화가 내포하는 의미와 그 의미의 분석에 동원된 시각들 중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三姓神話는 濟州島의 三姓氏族의 始祖神話인 동시에 耽羅의 開國神話다"(玄容駿 1983:45)라는 단정적인 진술은 이 신화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입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15] 이러한 진술과 견해의 첫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 신화의 命名에서 부터 출발한다. 각종 교과서나 권위있는 국사 서적에서 부

14) 漢字로 표기된 都(근래에 와서는 徒라고 쓰는 것)를 濟州方言과 연결시켜보면, 都가 막연한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과 목축을 위한 土地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즉 방언에 "도튼다"라는 말이 있다. 돌담으로 둘러쳐진 밭에 출입을 위하여 돌담의 일부를 허물고 다시 쌓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金允植의 續陰晴史에 民亂中 民軍이 모이는 곳을 道라고 표기했다. 이 道도 길이 아니라 區域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토지의 배타적인 구역을 말하는 탐라 방언인 것이다.

15) 현교수만이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神話를 보는 대부분의 견해들이 이와 대동소이하다. 본고에서 현교수의 글만을 인용비판하고 있는 것은 현교수가 이 신화에 대하여 가장 많은 언급을 한 학자들 중의 한 분이

터 관광안내지에 이르기 까지 이 신화를 언급하는 언표와 기록들은 한결 같이 "三姓神話"라고 사용한다. 이 神話내용의 문화적 맥락과 姓이란 개념이 내포하는 문화적 맥락이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이 神話를 "三姓神話"라고 표기할 수 없다. 이러한 命名의 유래를 생각해 보건데, 이 命名의 이면에는 日帝의 文化帝國主義的 음모가 숨어있다고 생각된다.

이 神話를 "三姓神話"로 기록 명명한 것은 日本人 學者 또는 日本의 植民地 교육을 받은 인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가능하다. 필자의 과문과 게으른 탓으로 "三姓神話"라고 표기된 최초의 글이 무엇인지를 밝힐 확증은 없다. 그러나 耽羅나 濟州島를 언급하는 朝鮮時代의 각종 文集類·史書 등에서는 "三姓神話"라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했고, 日帝時代에 교육을 받은 60代와 50代후반의 인사들과 면접에서 얻은 자료로는 1920년대 초반에 발간된 "조선어독본"에 이 신화의 내용과 그 제목이 "三姓神話"라고 되어있다고 한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뜻있는 분의 추적이 기대된다. 그러면, 왜 이 신화를 "三姓神話"라고 명명했을까? 필자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日本人들이 한국의 역사·문화·지리를 식민통치의 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朝鮮"을 "李氏朝鮮"이라고 자의적인 개명을 한 극명한 사례의 논리가 바로 이 신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단위의 문화사적인 의미를 지닌 신화를 한낱 姓氏中心의 집안일로 격하함으로서 거시적인 문화사를 말살하려는 식민주의 사관이 이 신화를 "三姓神話"로 명명한 저의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의는 조선후기에 만개한 姓氏中心思想으로 인하여 은폐되기 쉬웠고, 이 신화를 연구하는 식자들은 학문적 식민주의(academic colonialism)에 안주해왔고, "三姓"들은 姓氏경쟁의 초석을 굳혔던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신화는 탐라부족신화이며, 후대에 제주도에서 형성된 세 부계씨족의

고, 또 이 신화에 대한 위와 같은 개념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인용한 것임에 불과하다.

시조신화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개념화 및 진술되는 것이 예상되는 편견과 문제점들을 줄이기에는 훨씬 더 포용력과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Ⅳ. 유적과 유물

상고사회라는 대상 자체가 문헌사학으로만 정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동원되는 분야가 考古學인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선사시대는 물론이고 역사시대의 문제에 이르기 까지 고고학적연구의 공헌은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고 탐라사회라는 주제를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들에 대해서 연구한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차적으로는 제주도와 관련되는 지역으로 부터의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가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상고시대 탐라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준거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발견의 유적과 유물을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고고학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고학이란 학문분야 자체가 견지하는 입장이 몇 개의 가닥으로 나뉘기 때문에,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상고 탐라 사회라는 주제를 대하는 필자의 입장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고고학의 궁극적 목적이란 편년과 문화복원에 주력하는 역사과학이라기 보다는 유적과 유물에 관련된 인간행동과 사고 및 그 원리를 발견하는 인류학적 과학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고학적인 연구결과는 때로는 신화적인 요소들과의 비교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민족학적인 자료들과 상호관련성을 맺기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위에서 필자는 고고학적인 연구결과의 비교검토와 재해석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탐라상고의 문화를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본고의 서언에서 필자는 상고 탐라 사회를 고려하는 상한년대를 신석기시대로 한정하였다. 제주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

한년대를 신석기시대로 한정한 이유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이에 벌어져 있는 엄청난 자연환경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지질년대로 제 4기에 속하는 구석기시대의 제주도는 도서가 아니라 거대한 땅덩어리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島嶼로서의 탐라 또는 제주도는 적어도 자연환경의 측면에서 도서라는 특징을 구비한 시대에 한하는 것이 탐라문화를 설명하는 기본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구석기 유적과 유물은 본고에서 주력하는 상고 탐라 사회라는 주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주도의 구석기 문화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선사와 역사의 양시대를 포함하는 탐라상고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각은 현재의 정치적 경계와 경제적 단위의 설정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미 피력한 것처럼, 그리고 신화의 분석에서 가능성이 제시되었던 것처럼,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해양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폭의 확대는 제주도 신석기 문화의 형성과정에 하나의 가설적 제안을 하게 한다.

고고학적 조사보고와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신석기 유적으로는 후기신석기시대(서기전 2000~1000년)에 해당하는 北村유적을 비롯한 몇 군데가 보고되어 있다(李淸圭 1987a:118). 이 시기의 특징적인 유물인 櫛文土器는 한반도의 그것과 동일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北村人들은 적어도 한반도 즐문토기인들과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끼나와의 東原유적에서 한반도 즐문토기계통의 토기가 대량으로 출토된 사실과 그 토기를 반출하는 문화의 절대연대가 기원전 2830년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실은(임효재 1986a, 1986b) 제주도 신석기시대의 위상을 재고케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와 오끼나와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제주도의 신석기시대가 후기를 최상으로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상한은 적어도 오끼나와의 東原유적보다는 앞서는 중기 또는 전기의 신석기시대로 소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심증이 굳어진다.[16]

16)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품고 濟州島 考古學의 주

한반도와 제주도 그리고 오끼나와를 잇는 즐문토기계통의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우리는 탐라상고의 문화와 해연관계를 맺고 있는 동지나해양문화권을 가설적으로 연상하게 된다. 해로를 통한 이 문화권내의 교역이 적어도 중기 신석기 이후 초기철기시대에 까지는 계승되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오끼나와의 구스쿠패총에서 출토된 明刀錢(江上波夫 1983:14)은 당시 오끼나와가 燕나라(기원전 323~222)의 경제권과 그 활동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물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손칼모양의 청동화폐인 明刀錢의 주요 출토지는 요동반도·압록강중류·대동강상류 그리고 서해안의 鐵山 등지로서, 중부 이남의 한반도에서는 아직 출토사례가 없는 것을 참고한다면, 渤海灣과 黃海 그리고 東支那海를 잇는 해상무역로의 존재를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발해와 황해 그리고 동지나해를 잇는 남북무역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고시대 탐라의 문화사적 좌표가 명백하게 지적될 수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상고 탐라 사회를 발굴하는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의 수 및 출토유물과 청동기시대 이후 유적의 그것들을 대조하면, 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청동기시대 이후의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 탐라인들의 자연증가 이후에 탐라의 청동기시대가 전개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청동기문화가 탐라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부터의 많은 이주민이 도래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해석은 곧 뒤이어 수입되는 철기문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탐라문화의 유적은 貝塚과 支石墓이며, 그에 반출하는 대표적인 유물은 한반도 계통의 無文土器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시기적인 구분이 유적과 유물에 의해서 비교적 뚜렷

연구자인 이청규 교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교수 자신이 이러한 견해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견해를 뒷 받침할 만한 유적이 한경면 고산리에서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채집된 융기문토기 편은 北村유적보다 시대가 올라가는 초기 신석기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유물과 초기철기시대 유물이 혼재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본란에서는 이 두 시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 의하여 얼마나 세밀한 분류가 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유적에서 이 두 시기의 문화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제주도 선사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즉 신석기시대 이후에 개발되어 있었던 해양의 교역로를 통해서 한반도의 무문토기문화가 제주도에 전해지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상황하에서 제주도는 한반도중심의 주변지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러한 周邊化의 결과는 철기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적 속성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무문토기 문화가 제주도에 존재했던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은 上摹貝塚과 郭支貝塚에서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濟州島式〉 무문토기(소위 "郭支式 무문토기")와 金海土器편을 공반시키는 光令里 유물산포지(李淸圭 1986:80-85)의 존재와 "無文土器와 金海土器편이 함께 출토되는" 지석묘유적(李淸圭 1985:35)의 현상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제주도의 무문토기시대는 기본적인 생활용구인 토기와 매장방식에 있어서 제주도 특유의 전통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로부터 이주한 이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짧은 기간내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적응했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적응과정을 고고학적 자료에 의존하여 추적해 보는 것은 탐라상고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왜, 그리고 어떻게, 제주도의 櫛文土器文化가 無文土器文化로 전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주도의 신석기 유적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문은 한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인 가정은 한반도로부터의 流移民에 의한 이주설이다. 이주민들의 문화전통적 성격이 자못 다양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토기를 비롯한 각종 유물의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다.

"제주도 上摹里 유적의 무문토기는 서북한 지방의 팽이형토기 속성과 동북한 지방의 공렬·골아가리토기 속성이 복합된 토기문화"(李清圭 1987b: 343)이며, 제주도내에서 "복합양상이 더욱 진전된 모습"(李清圭 1987a:136)으로 이행되었다는 결론과 "郭支패총 Ⅱ지구 최하층·龍潭洞 유적 남쪽구역·北村里 유적 상층·翰林邑 東明里 유적에서는 공렬 또는 골아가리토기만이 출토"(李清圭 1987c:339)되었다는 결론을 비교해 보면, 한반도 남해안으로부터 제주도로의 이주 통로는 적어도 단선은 아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유물을 예시해 보기로 하자. 초기철기시대로 비정되는 郭支貝塚 출토의 土製紡錘車(12개)의 형태가 東外洞(慶南 固城)·府院洞(慶南 金海)·城山(慶南 馬山) 등지의 패총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교해서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가 지니는 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즉 한반도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이 제주도에서는 한 곳에 집결된 것 같이 보인다"(崔虎林 1986:189). 토기와 紡錘車에서 보이는 문화적 전통의 다양한 속성은 한반도로 부터의 문화전달자인 이주민들의 성격과 出自地가 다양할 것이라는 전제를 성립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제주도 특유의 문화적 전통인 〈濟州島式〉을 배태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濟州島式〉 無文土器[17]와 〈濟州島式〉 支石墓라고 생각된다. 제주도식 무문토기는 "크게 벌어진 구연부와 바닥에 비해 훨씬 넓은 입지름, 胴體部 상단에 형성된 어깨, 축약현상 없이 이어지는 동체부와 바닥의 접합면, 그리고 두텁고 거칠며 단단한 태도가 특징적인 적갈색 무문토기"(李清圭 1986: 61)로서 초기철기시대 제주도 전역의 대표적인 유물인 것이다. 郭支貝塚을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陶質土器와 함께 출토되는 무문토기계통의 深鉢形土器(李清圭 1986:64)는 〈濟州島式〉 무문토기의 후기적 발전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濟州道式"(金秉模 1981)으로 따로 분류되고 있는 제주도식 지석묘는 제주도와 秋子島(全京秀·李起旭 1985:232-233)에서만 발견예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상석의 한쪽은 높은 비탈면을 이용하여 낮게 고

17) 이청규 교수는 이것을 郭支式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고 다른 한쪽은 판석모양의 지석으로 높게 둘린" 형태로서 "반지하 혹은 지상매장에 횡혈식 매장수법을 이용한 제주도 특유의 형식"(李淸圭 1985:18)이다.

이렇듯 〈濟州島式〉의 형성과 그 전통의 성숙은 당시 탐라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출발지와 시기가 서로 다른 이주민집단들이 하나의 전통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변수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정도의 사회적 안정과 그 안정의 요체가 되는 사회적 통합의 정도도 중요한 변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사회적 통합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논증해 줄 고고학적 자료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역간의 비교검토에 의해서 당시 탐라사회의 社會文化的 統合의 水準을 유추하는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비교대상으로서의 가능지역은 韓半島의 南部地方과 日本의 九州地域이라고 생각된다. 남방식 지석묘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남 영산강유역의 상황이 "기원전후까지 시대가 떨어지는 粗質無文土器와 金海土器를 공반"(崔夢龍 1978:46)하는 유적이고, "南鮮式 지석묘 전래의 시기가 漢四郡 설치 이전인 기원전 108년 이전"(森貞次郎 1979:68)인 九州地域[18]과의 비교로부터 제주도식 지석묘를 중심으로 하는 탐라상고의 문화를 밝히는데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龍潭洞에서 출토된 지석묘 하부구조와 옹관묘의 시대적 선후상황에서, 공렬토기 등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유물을 포함하는 지석묘계통이 순수철기를 수반하는 甕棺墓보다 앞선다는 보고(李淸圭 1986:131)로부터[19] 제주도식 지석묘의 전성기는 적어도 영산강유역 지석묘의 하한연대보다는 선행일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고, 그 결과 영산강유역 九州지역·제주도지역

18) 西北九州 지역에만 편재되어 있는 일본 지석묘의 각종 형식은 그 모체지인 우리나라 지석묘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沈奉權 1986 참조.

19) 한국에서 옹관묘는 대체로 지석묘 보다 후대에 축조된 별개의 분묘양식이다. 손병헌 1987:83 참조.

의 지석묘들은 모두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각기의 전통을 확립하면서 공존했던 한반도 지석묘문화의 지역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지역적 전통들은 각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海路를 통한 상호밀접한 교역관계의 상황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논리는 이후에 등장하는 초기철기시대의 옹관묘유적과 漢式鐵器遺物들의 분포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석묘의 하부구조로서 등장하여 지석묘를 대체하는 과정을 겪는 九州地方의 甕棺墓(沈奉謹 1986:64), 토착적 묘제인 石槨墓보다 후기에 축조된 金海貝塚의 옹관묘(金元龍 1986:118), 기원전 1세기로부터 기원후 1세기에 이르기까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新昌里(全南 光山) 옹관묘(徐聲勳 1987:511)[20] 등은 모두 기원전후에 공존했던 지역적 특색을 가진 분묘양식으로서 黃海道 信川 明沙里에서 출토된 明沙里式 옹관묘(기원전 2세기)의 지역적 특수변형이다(安春培 1985:269). 반면에, 제주도 龍潭洞 옹관묘의 연대가 한식철기의 공반상황을 보아 기원후 1~2세기에 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李清圭 1987a:138) 탐라상고문화의 후진성이 明沙里式과 新昌里式으로 이어지는 옹관묘계통에서도 나타난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龍潭洞의 석곽묘를 공반하는 옹관묘가 지석묘군과 인공적인 石列에 의해서 구획이 지어진 묘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상황과(李清圭 1986:129 그림 46) "金海貝塚의 옹관묘군과 석곽묘군이 얕은 돌각담으로 격리되어 있는"(金元龍 1986:118) 상황은 옹관묘를 축조한 사회집단의 공통적인 성격을 대변해 주는 반면, 석곽묘와 옹관묘가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金海패총의 상황이 龍潭洞에서는 동일시기에 나타남으로써 기술단계의 시간적 낙차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옹관묘라는…새로운 묘제의 출현은 바로 지석묘·석곽묘계 집단 이외에 다른 계통의 주민이 이 지역에 이주 정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며"(李賢惠 1984:89), 당시 이주민이라고 생각되는 옹관묘집단은 토착민인 지석묘

20) 龍潭洞式 옹관묘의 合口甕棺이 新昌里式 옹관묘의 합구옹관과 규모와 형식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주목해서 분석해 보아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는 석곽묘집단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하여 기존의 사회구조와 조직에 일대의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본인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 시간적으로 100년 내외 정도의 낙차를 갖고 이주해온 옹관묘 축조인들은 이후 탐라사회의 성격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구조와 조직이라는 것은 지석묘를 축조하던 부족사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부족사회는 철제무기를 소장한 석곽묘 및 옹관묘 축조집단의 등장에 의하여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장검·단검·창·끌모양의 무기·도끼 등은 龍潭洞 옹관묘역내의 석곽묘에 부장된 것이고 화살촉의 대부분은 積石의 틈틈에서 출토되었다"(李淸圭 1986:132)라는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龍潭洞의 경우에는 석곽묘와 옹관묘가 동일시기에 축조된 분묘이며, 그 부장품의 종류로 보아서 석곽묘의 被葬者와 옹관묘의 피장자 사이에 존재하는 身分 또는 階級의 차이를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龍潭洞 북쪽의 석곽묘와 옹관묘가 공반하는 유적의 의미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여 탐라상고사회에 있어서의 위계적 신분사회를 증명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그 규모는 모르지만 초기국가로서의 耽羅國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기틀이 된다. 즉 耽羅部族神話의 내용중 "射矢卜地"의 표현으로 부족사회의 평등원칙이 반영되었던 시대와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위계적인 계급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본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하는 漢式鐵器遺物이란 五銖錢과 그에 관련되는 유물들이며, 五銖錢 출토지의 분포가 탐라상고의 문화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1928년 濟州市 山地港 축조공사시에 용암괴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된 일련의 유물들중에는 "銅鏡 2, 劍의 부속장식 1, 五銖錢 4, 貨泉 11, 大泉五十 2, 貨布 1"(梅原末始·藤田亮策 1947: 57-59, 이청규 1986: 사진 189와 190)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유적의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단서가 五銖錢과 貨泉이기 때문에 山地港 유적은 한반도 철기문화 유입의 하한을 명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21]

五銖錢은 西漢(前漢) 시기인 기원전 118년부터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화폐이며(Cheng 1945:77), 王莽의 新나라가 貨泉을 주조한 시기에는 五銖錢이 사용 및 주조 금지를 당했었고, 東漢(後漢) 이후 五銖錢은 재주조되어 통용되었다. 따라서 五銖錢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로 주조되었고 錢範의 발견에 의하여 대부분 五銖錢의 주조연대가 밝혀져 있다. 貨泉은 王莽의 시대(기원후 9~23년)에만 주조 및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적어도 중국에서는) 이 돈이 출토되는 유적의 연대결정에 비교적 유리한 역할을 한다.

한반도와 인근지역에서 五銖錢의 출토지는 황해도(雲城里·青龍里·仙峰里·黑橋里 등)(岡內三眞 1982), 자강도 중강군·濟州島 山地港·全南 巨文島,[22] 馬山 城山貝塚(崔夢龍 1985a:69) 등으로서 황해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 분포되어 있다. 황해도의 黑橋里와 雲城里 출토 그리고 제주도 山地港 출토의 五銖錢을 중국의 그것들과 비교검토한 岡內三眞은 황해도와 제주도의 것들을 西漢(前漢) 후기의 것으로 확정하고 王莽錢과의 관계를 논한다(岡內三眞 1982:107).

〈漢書 食貨志〉에 의하면, 王莽錢은 天鳳元年(기원후 14년)에 주조된 것으로서 王莽의 新이 망하는 기원후 23년까지 통용되었던 화폐이다. 貨泉의 중요출토지는 평남의 대동강변 고분(朝鮮總督府 1923:37), 황해도, 제주도 山地港, 金海 回峴里패총(朝鮮總督府 上同), 日本 對馬島 시게노탄, 長崎縣壹岐部 田河原原辻(崔夢龍 1985b), 北九州 사도군 송원, 경도북부 단후지역(朝鮮總督府 上同) 등으로서 그 주요 분포지는 五銖錢의 주요 분포지와 상당히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단지 王莽錢의 분포지가 五銖錢의 분포지보

21) 탐라 상고사를 언급하는 대부분의 문헌들은 李重煥의 〈擇里志〉를 인용하면서 (그 원조는 金錫翼의 〈耽羅紀年〉이라고 생각된다), 漢明帝 永平八年乙丑 南溟 紫氣라고 하여 기원후 65년인 永平八年에 한라산이 폭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이때 山地港의 유적이 매몰된 것으로 기술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擇里志〉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 없다.

22) 최몽룡 교수의 보고에는 이 30개의 五銖錢이 全南 務安출토로 되어 있으나 (1985a:69), 필자가 최교수에게 확인해본 결과 巨文島 출토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정정해 주었다.

다는 日本의 동쪽으로 좀더 진전되어 갔을 뿐이다. 문헌상으로는 王莽錢이 기원후 14년부터 23년까지 약 10년정도 유통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짧은 기간동안에 王莽錢의 분포지가 한반도의 북부와 제주도를 경유하여 일본의 關西地方까지 확대되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해운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고 신속한 교역형태였었던가를 잘 반영해 준다. 그리고 그 무역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화폐의 교환에 의한 무역의 존재라는 것은 그 교역망에 관련된 사회들이 어느정도 직업에 의한 수평적·수직적 분화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말미와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말미에 기록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三國志〉의 내용[23]과 〈後漢書〉의 내용[24]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州胡와 "中韓"의 교역관계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상기의 해운무역로라는 맥락을 염두에 두고 탐라의 입장에서 "中韓"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것이 탐라상고의 사회경제적 및 국제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三國志〉에 나오는 "中韓"의 위치에 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본 논고는 필자의 과문탓으로 발견해 보지 못했다. 다만 한국고대사를 논하는 과정에서 "州胡"에 관한 서술이 필요할 때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에서 "中韓"의 위치가 "馬韓"으로 표시되는 경우(이병도 1966:459)와 耽羅와의 주 교역대상지를 馬韓으로 간주하는 경우(森 公章 1986:117)가 있다. "中韓"의 위치에 대한 斗溪선생의 "馬韓說"이 후학들에 의해서 별다른 의심없이 인용된 것이 "中韓"의 위치에 관한 학계의 현황인 것 같다.

필자는 이 기회에 "中韓"의 馬韓說을 보류함과 동시에, "中韓"의 위치는 경남의 남해안지방 즉 옛 狗邪國 중심의 弁韓지역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

23)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豳,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中韓.

24) 爲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 髡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필자는 三國志와 後漢書의 기록중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三國志의 기록을 따른다.

하고 싶다. 환언하면, 그 "中韓"의 위치는 적어도 馬韓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五銖錢과 貨泉(王莽錢)의 출토지를 미루어 보아서 탐라와 교역을 했던 주대상지역은 현재의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馬韓영토는 아닐 것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古錢의 출토지만을 상정한다면, 그 "中韓"의 위치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한지방일 수도 있고, 경남의 남해안지방일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후자를 선호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황해도 중심의 서북한지방은 〈三國志〉나 〈後漢書〉를 집필한 사람들 집단에게 漢四郡이 자리잡은 위치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탐라의 교역지가 그 지역이라고 인식되었다면 "中韓"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기 보다는 그 漢四郡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이 狗邪國은 弁韓의 중심지로서 고래로 馬韓·辰韓·倭 등과의 무역중심지로 확인되어 있다(李丙燾 1966:315). 그리고 중국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 보아 狗邪國을 포함하는 弁韓의 위치는 馬韓과 辰韓의 가운데로서 인식될 수 있다. 馬山 城山패총과 金海 回峴里패총에서 출토된 古錢들이 제주 山地港 출토의 古錢들에 대한 상대역이 될 수 있고, 巨文島에서 출토된 五銖錢은 狗邪國과 탐라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간기착지의 반영이라고 해석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최근에 木浦大 崔盛洛 교수에 의해서 발굴된 全南 海南 郡谷里貝塚 출토의 貨泉(王莽錢) 1점은 이 해운무역로의 변경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中韓"이 적어도 馬韓은 아닐 것이라는 간접적인 방증으로서 복합식 공렬토기의 출토지를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漢江 유역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복합형 토기는 전라도지방에서 출토사례를 보이지 않고 경남 해안지방(釜山 朝島·馬山 城山·晋州 大坪里 등)과 濟州島에서 출토되고 있는 현상을 볼 때(李清圭 1987a:139), 이 두 지역간의 연결관계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시할 수가 없다. 이 경남해안지방이 바로 狗邪國이 있었던 곳임에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 토기가 관련되는 시기는 五銖

錢과 貨泉이 등장하는 시기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라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역로라는 것은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번째 이유를 간접적인 방증자료로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두 번째의 이유와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는 간접적인 것으로서 "中韓"이 적어도 馬韓지역은 아닐 것이라는 논의이다. 〈魏書 高句麗傳〉에 고구려 文咨王 13년(서기 504년)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부터 전통적인 무역로의 장기존속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

>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曰：高麗係誠天極,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遂, 涉羅爲百濟所并….

상기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고구려가 당시 耽羅와 무역을 했던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당시 高句麗와 百濟간의 알력관계를 생각해 보면, 고구려와 탐라간의 무역을 백제가 중개했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고구려의 지역과 탐라간에 기존해 있던 전통적인 해운무역로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시사가 아닐까 한다. 이즈음 백제와 탐라간의 관계가 일종의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료[25]의 존재도 이러한 시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서기 498년 백제가 탐라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던 기록을 보면, 고구려 사신 芮悉弗이 魏王에게 한 말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탐라의 이웃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日本書紀〉에 탐라인이 최초로 백제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탐라가 백제에 복속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森 公章 1986:119).

넷째, 짤막한 동일문장내에서 이미 「馬韓」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어서 「中韓」이라는 단어를 제시한 것은 기록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馬韓과 中韓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

25) 〈三國史記〉 백제 東城王 28년(서기 498년) 8월 條에,
王以 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日本書紀〉 繼體 2년(서기 508년) 12월 條에.
南海中耽羅人初通 百濟國.

五銖錢 및 貨泉의 출토라는 상황과 옹관묘출토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기원후 1세기 중엽에서 말기에 이르는 시기에 탐라사회는 커다란 변혁을 경험한 것 같다. 즉 五銖錢과 貨泉의 출토에서 보이듯이 탐라까지 미쳤던 漢帝國의 경제적인 남진세력은 한반도에서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정치적 운동세력에 의하여 약화되고, 그 漢帝國의 세력을 대체한 것이 한반도 남부로부터 耽羅에 이주해온 甕棺墓 축조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옹관묘 축조집단이 한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후진적인 옹관묘 축조집단이 초기국가로서의 탐라국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北村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몇 군데의 rock-shelter형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동물뼈와 조개류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당시 탐라인들의 주거형태와 식사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활동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rock-shelter나 동굴이 주거지로 이용되는 것은 상당히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전통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적인 방식으로 고려된다. 동물뼈와 조개류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들의 생산활동이 주로 수렵채집단계에 있었으며 北村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骨器들과(李淸圭 1986:26) 郭支貝塚출토의 골각기 및 貝器(이청규 1986:62-63)는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양쪽을 모두 생산과 이용의 적응적 수단으로 삼은 초기 탐라인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석기시대 탐라인들이 主食으로 무엇을 상식했던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발굴조사에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지만, 北村유적의 취사시설에서 확인된 香辛料의 일종인 좀피(李淸圭 1986:15)는 北村人들이 낙엽활엽수림대에서 생산되는 각종 열매를 채집했던 좋은 단서라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식량으로 이용되었던 도토리의 출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全京秀 1984:85-86 참조).

上摹里貝塚에서 출토된 현무암제 그물추와 토제 그물추 그리고 郭支貝塚에서 출토된 어망추(李淸圭 1986:53, 61)의 존재는 당시의 어로기술이 단순한 패류의 채집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선과 어망을 이용한 어류의 포획방식

을 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러한 유적들이 해변가에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北村시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커진 탐라인들의 살림규모를 알게 한다.

〈濟州島式〉 無文土器와 〈濟州島式〉 支石墓를 발전시킨 탐라인들은 기존의 수렵채집방식과 어로활동을 벗어나서 농경생활을 주업으로 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해변가의 郭支貝塚에서 갈판과 갈돌 및 제분용 공이 그리고 어망추가 함께 출토되는 것은(李淸圭 1986:61) 그들의 반농반어적인 생산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비교적 내륙지역이며 用水 조건이 좋은 光令里 유물 산포지에서 농경관계의 有溝石斧와 갈돌 및 갈판이 대량으로 발견되는 것(李淸圭 1986:80-85)은 순수히 농업생산력에만 의존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郭支貝塚과 上摹里貝塚 그리고 西歸浦·高內里·東明里·龍潭洞 등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土製紡錘車는 당시 탐라인들의 직조기술을 알게 한다. 이 紡錘車의 존재로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에 기록된 〈州胡〉 관계기사에서 "다만 가죽옷을 입었으며"라는 진술은 중국인들이 州胡人의 원시상태를 과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거나(高昌錫 1986:7), 아니면 이 진술의 대상이 耽羅先民의 일종으로 생각되는 州胡人일 것이다.[26]

한반도로 부터의 이주민 또는 한반도와의 교역에 의하여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있어서 무문토기시대 이후 한반도와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上摹里출토 무문토기의 口緣部片 169점 중 22점의 태토성분이 석영·장석·운모여서 현지에서 제작되는 토기의 태토성분이 검은 색계통의 감람석·휘석·현무암 모래 등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을 보인다(李淸圭 1987b:338). 요약하면, 토기중 약 13%가 한반도로 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결론이 되며, 육지의 전통이 많이 남은만큼 濟州島化가 덜 진행된 흔적

26) 1892년에 출판된 松尾之蚕의 「아이누 風俗略誌」라는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문헌을 근거로 金泰能(1982:9-13)·宋錫範(1984:83) 등은 州胡人을 "日本先民이라고 생각되는 「고루보구」인"과의 관련설을 제시하고 있다. 日本先民이 「고루보구」인이라는 說은 이미 사장된 것이며, 日本先民은 日本列島의 각처에서 발견된 洪積世人骨들(明石人·葛生人·牛川人·三ケ目人)로 밝혀져 있다(鈴木 尙 1962:102-116). 하물며 州胡人을 이제 와서까지 「고루보구」인과 관련시킨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을 이 패총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부문에서는 土着化의 완성형을 보이고, 어떤 다른 부문에서는 토착화의 미완성상태를 노정시키고 있는 현상이 상고탐라문화의 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 토착화의 미완성상태가 후일 한반도에 비해서 탐라문화의 후진성이라는 문제와 초기국가로서의 탐라국 형성과 전개에 문제점으로 남게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는 고고학적 유적상에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상태를 보이는 경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郭支·龍潭·光令의 세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물내용의 비교작업에서 얻어진 결과는, 해안가인 郭支里와 제주시 지역(龍潭)은 삼국시대의 유물을 계속적으로 출토시키는데, 대규모의 초기철기 농경유적인 光令里 지역은 발전이 중단된 상태이다(李淸圭 1986:81). 光令里라는 곳은 제주도내에서도 用水條件이 가장 좋은 곳들 중의 하나로서, 농업입지로는 제주도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따라서 초기철기시대 당시 인구의 자연증가 및 외부로부터의 이주에 의한 인구압력은 제주도내의 내륙으로 진출을 시도케 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짐작되고, 농경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던 이주민이 光令里로 진출한 주역들이라고 믿어진다. 그런데, 왜 光令里에서 정착농경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안과 그 파급효과의 문제를 찾아내는 작업은 워낙 방대한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稿를 달리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질문의 기본내용이 바로 외부로부터 수입된 정착농경이라는 문화현상이 토착화의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후일 어떤 형태로든 〈濟州島式〉 농경이 정착의 상황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 (金相昊 1979), 초기철기시대로 부터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토착화에 실패한 정착농경은 제주도의 환경에 재도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 현상을 좀더 기다란 시간의 차원에서 보면, 토착화의 지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제주도에서 통용되는 근래의 속담중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생기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것이 있다.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가야하는 곳에 사람이 가게되니 그것이 바로 사회적 추방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얘기는 상고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 한반도에 종속된 濟州島의 周邊部化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된 후에 생겨난 가치관의 표현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가치관을 탐라의 상고시대를 보는 안목으로 채택하거나,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상고탐라를 조망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탐라상고사회라는 주제를 대하고, 필자는 이러한 시각의 문제부터 정리하려고 시도했다.

상고 탐라문화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을 밝혀보려는 노력을 위하여, 필자는 신화와 고고학적 자료를 주자료로, 선별적으로 뽑은 문헌사료를 보조자료로 동원하였다.

신화의 분석으로부터, 이 신화는 耽羅部族神話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왜냐하면 이 신화의 중요한 기간내용은 父系血統구조를 갖고 있는 씨족들간의 씨족聯合에 의한 部族社會 또는 酋長社會 형성의 배경과, 耽羅部族을 형성한 이후 외부세력과의 혼인동맹에 의한 보다 복잡한 부족적 편제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배경을 그린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규모의 혈연중심 편제의 사회가 내포하는 모순이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해결이 되는 탐라사회의 모습도 담고 있다. 탐라부족사회는 일반적인 수렵채집경제의 사회들이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고용하는 평등적 사회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비교문화적 시사도 가능하다.

해양세계와의 연결관계, 즉 海緣關係라는 시각이 탐라부족신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해석은 이후 탐라사회의 운동방향을 설정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도 하다. 三神人으로 구성된 耽羅部族이 해연관계의 맥

락에서 三處子集體 즉 碧浪部族과의 혼인동맹을 맺음에 의하여 탐라사회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구조적 변화의 양상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화가 내포하는 生産樣式의 변화부분이다. 즉 수렵채집 경제로부터 정착농경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신화의 분석과 그 과정에서 추상화할 수 있는 탐라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로부터의 이주민 집단과 그에 수반되는 文化接變이 탐라사회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중요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의 고찰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부족적 배경을 가진 탐라사회가 신석기시대에는 비교적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라는 가정은 일반론의 유추에 의하여 가능하다.[27] 그리고 이 당시의 탐라사회는 동아시아 해양세계의 일원으로서 인근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의 맥락하에서 櫛文土器文化의 배경을 가진 자체적인 新石器文化를 건설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는 논의의 출발을 도와줄 수 있다.

無文土器文化를 배경으로 하는 제주도의 청동기 및 철기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시대의 탐라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濟州島式 無文土器〉와 〈濟州島式 支石墓〉라는 점은 文化史上 탐라사회가 외부로부터의 수용과 내부의 축적에 의하여 토착화를 완결한 탐라문화의 정수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탐라에 등장한 많은 문화특질들이 모두 다 이러한 경지에 다다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강력한 탐라문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상에서 토착화의 지연과 미완성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한 현상은 光令里에서 발견된 대규모 초기철기시대의 농경문화의 진전과 갑작스런 정지라는 상황에서 설명이 된다. 탐라상고사회의 운동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토착화의

27) 신화적 시간과 고고학적 시간을 일치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지연과 미완성이 탐라문화가 문화의 정체적 후진성의 길을 걷게 되는 자생적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과 문명을 소유한 집단이 중심지를 형성하여 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탐라는 그 中心地에 대한 周邊地의 지위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짙다. 물론 이 자생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 사이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외시킬 수 없는 현상이며, 그 역동적인 관계에서 역사의 드라마는 더욱 복잡미묘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외부와의 끊임없는 해연 및 육속관계를 맺어온 탐라사회가 주변지의 운명이 되는 근본원인 중의 하나는 적어도 토착화의 실패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고고학적인 보고의 분석에서도 논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석기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밀어지는 동지나—황해—발해만을 잇는 쌍대적인 문화의 흐름은 오끼나와 발견의 줄문토기적 전통을 가진 토기가 웅변해 주고 있다. 탐라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전통적인 문화교류통로는 華北地方에서 발원된 帝國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소멸화의 과정을 밟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운동력을 발휘하여 대륙의 화북지방이라는 정치경제적 중심지가 인근지역을 주변부화하는 과정의 맥락에서 탐라사회가 그 일부로 편입된 것 같다. 이 과정을 시계열상으로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남부로부터 지석묘를 포함하는 무문토기사회의 문화가 탐라에 전달되어 〈濟州島式〉이라는 토착화의 완성형을 창출하였다. 2) 漢帝國의 세력강화로 화북중심의 중심부가 형성되면서, 황해—한반도 남해안—일본 九州를 연결하는 비교적 형식화된 해운무역로가 발달되었다. 그 증거는 五銖錢과 貨泉의 출토지로 비정된다. 탐라는 그 중간지임이 명백하다. 이 과정에서 탐라는 이미 달성했고 축적했던 토착화의 경험을 상실하는데, 그 증거는 갑자기 중단된 光令里 농경문화의 발전상이다. 3) 한반도의 정치적 세력권이 성장함과 동시에 화북중심부가 퇴영하게 된다. 그에 따라 주변부로서의 탐라를 관리하는 중심부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화북으로부터 한반도 남부로 바뀐다. 그 증거가 龍潭洞 출토의 후진적인 옹관묘 및 석곽묘 축조인이라고 생

각된다. 漢帝國의 세력이 퇴치된 탐라에서 한반도로부터의 철제무기를 소지한 세력이 과거에 탐라인들이 이룩했던 〈濟州島式〉 支石墓를 보호하고[28] 탐라사회를 초기국가의 형태로 경영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옹관묘인들이 지석묘역을 보호했다는 현상으로부터 시대는 차이가 나지만 옹관묘인들과 지석묘인들의 種族的 동질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4) 주변부로서의 위치로 오랜동안 남아있었던 탐라사회는 초기국가의 건설에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다. 그 증거가 삼국시대의 유적과 유물의 발견이 극히 제한된 해변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산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島嶼性 즉 島嶼의 고립성이[29] 탐라사회로 하여금 한반도에 건설된 정복국가로 부터의 침해를 덜 받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제주도에 건설되었던 초기국가로서의 탐라국은 약체로 유존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정복국가에게 附庸—服屬—編入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周邊地的 성격은 더욱더 뚜렷이 부각된다. 나라 잃은 유랑민들의 피난지로서,[30] 유배지로서, 아니면 말이나 보내지는 "척박한 땅"으로 인식되는 역사적 산물임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탐라상고사회의 운동방향은 결국 周邊部化라고 요약될 수 있다.

---

28) 발굴자인 이청규 교수는 지석묘군과 옹관묘군 사이에 옹관묘 축조인들이 쌓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石列의 배치가 지석묘 지역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역력하다고 강조한다.

29) 도서로서의 제주도 자체가 본연적으로 고립된 것이라는 가정은 海洋文化의 일반적 성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과 이미 구조화된 육속화의 패러다임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탐라부족신화의 분석과 고고학적 자료로부터 우리는 제주도의 개방성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고립된 지역으로서의 제주도 및 도서에 대한 관념은 역사적 사건들의 점철화과정에서 생산된 개념인 陸屬化의 우월성이 부여한 편견일 것이다.

30) 〈唐書〉 東夷傳 耽羅條에, 北扶餘 流民인 달말루 사람이 당나라로 조공을 들어가서 제주도에 살게된 연유를 진술한다. 즉 고구려가 북부여를 멸하자 그들은 「나하」를 건너서 「탐라」에 살게되었다고 한다. 당시 탐라에는 逋末裏와 逋奴의 두 部가 있었으며 그 수령이 당으로 조공을 다닌 것이다. 그때가 開元 11년(723년)이다.

참 고 문 헌

高昌錫, 1986, 제주도에 대한 고대문헌기록, 李淸圭편, 〈濟州島 遺蹟〉, 제주대학교박물관, pp. 7-11.

金秉模, 1981, 한국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1), 〈한국고고학보〉 10·11:55-78.

金奉鉉, 1960, 〈濟州島歷史誌〉 大阪 : 敎文社.

金相昊, 1979, 한국농경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사회과학논문집(서울대)〉 4:81-122.

金元龍, 1987, 〈한국고고학개설〉(3판), 서울 : 일지사.

金泰能, 1982, 〈濟州島史論考〉 서울 : 세기문화사, (원전은 1969년 발행 「濟州年鑑」 소수).

宋錫範, 1984, 〈濟州島古代文化の迷〉 東京 : 成甲書房.

徐聲勳, 1987, 영산강유역 옹관묘의 일고찰, 〈三佛金元龍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1)〉, 서울 : 일지사, pp. 501-524.

孫秉憲, 1987, 한국선사시대의 무덤, 〈三佛金元龍…〉, 서울 : 일지사, pp. 73-84.

沈奉謹, 1986, 弥生文化를 통하여 본 한일문화의 교류관계, 〈한국사론〉 16:30-72.

安春培, 1985, 한국의 옹관묘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논문집〉 18:133-290.

梁柱東, 1954, 〈古歌研究〉, 서울 : 박문출판.

李丙燾, 1966, 〈한국사(고대편)〉(4판), 진단학회편, 서울 : 을유문화사.

李淸圭, 1985, 제주도 지석묘연구(1), 〈탐라문화〉 4:25-50.

_____, 1986, 〈제주도유적〉, 제주 : 제주대학교박물관.

_____, 1987a, 제주도 토기에 대한 일고찰, 〈탐라문화〉 6:117-139.

_____, 1987b, 제주도 上摹里 무문토기에 대한 일고찰, 〈三佛金元龍…〉, pp. 329-356.

李賢惠, 1984, 〈三韓사회형성과정 연구〉, 서울 : 일조각.

任孝宰, 1986a, 한국과 오끼나와 교류사의 신자료, 박물관신문(국립중앙박물관) 176호(1986. 4. 30).

_____, 1986b, 濟州島 先史文化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濟州島研究〉 3:11-17.

張籌根, 1960, 三姓神話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65-70.

_____, 1986, 제주도 堂神神話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연구〉 3:249-256.

全京秀, 1984, 한국민족문화의 기원연구에 대한 방법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론〉 14:73-100.

全京秀·李起旭, 1985, 추자군도의 인류학적 조사보고, 〈자연실태종합조사보고 5(추자군도)〉: 213-256.

崔南善, 1948, 濟州島의 文化史觀. 〈朝鮮의 文化〉(六堂 崔南善 강연집 3). 서울: 東明社. pp. 79-126.

崔夢龍, 1978, 전남지방 소재 지석묘의 형식과 분류, 〈역사학보〉 78:1-50.

_____, 1985a, 고대국가의 성장과 무역,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역사학회 편, 서울: 일조각, pp. 57-76.

_____, 1985b, 對馬·壹岐島의 선사유적, 〈日本 對馬島·壹岐島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서울: 서울신문사, pp. 115-124.

崔虎林, 1986, 한반도출토 紡錘車에 관한 연구(2), 〈정신문화연구〉 29:161-193.

玄容駿, 1983, 三姓神話연구, 〈탐라문화〉 2:45-93.

岡內三眞, 1982, 漢代五銖錢の研究, 〈朝鮮學報〉 102:77-110.

江上波夫, 1983, 東ミナ海をぬぐる文化交流倭人の問題を中心にして. 〈沖繩文化の源流を考元る〉, 沖繩縣 編, pp. 10-32.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京都: 養德社.

森 公章, 1986, 古代耽羅の歷史と日本, 〈朝鮮學報〉 118:115-143.

森 貞次郎, 1979, 弥生文化の發展と地域性: 九州, 〈日本の考古學: 弥生時代〉(5版), 和島誠一 編, 東京: 河出書房新社, pp. 32-80.

朝鮮總督府, 1923, 〈大正九年度 古蹟調查報告 第一册(金海貝塚發掘調查報告書)〉.

鈴木 尙, 1965, 日本洪積世の人類. 〈日本の考古學(1): 先器時代〉 杉原莊介 編. 東京: 河出書房, pp. 102-116.

Cheng, Te-kun 1945, The Slate Tomb Culture of Li-fa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9(1):63-80.

Lévi-Strauss, Claude 1976, *Structural Anthropology* (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rt 3.